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성과와 과제 (3)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로 사실상 '올스톱'

특별자치도 출범 후 신화역사공원 등 개발 '붐' 투자진흥지구·무사증 제도 등 힘입어 유치 날개 中 자본 개발 급감... ICT·BT 투자 유치도 한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한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무사증 입국 제도가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는데 기여를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제 감면 등을 통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감면해 주고 취득세는 지정일 이후 5년 동안 면제해 준다. 이런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중국자

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투자자에 집중되고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자 도민사회에서는 도민이익 극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카지노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ICT·BT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유망산업을 중점 유치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투자유치도 아시아를 포함 다양한 국가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투자유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2006년

595억원에 그쳤으나 2015년 7억800만달러, 2016년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억700만달러(1조900억원)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화롱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FDI는 2017년 9억달러에서 2018년 3억5700만달러, 2019년에는 3억1400만달러에 그쳤다. 도내 FDI 신고금액도 2018년 2억7800만달러에서 2019년 4억1700만달러로 50.0% 증가했으나, 2020년엔 3억63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들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영주권 부여요건은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시,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다.

영주권 발급 건수는 2017년 57명을 시작으로 2018년 225명 2019년 538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중국인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 중단으로 2020년 3월 현재 573명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지역 수출 기업 지원 및 지역 전략 산업에 적합한 IT·BT 관련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수출산업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가격 억제 방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인력 수요가 집중하는 개발도상국(베트남·태국 등)에 대한 투자 유치 다변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오징어 말리기 좋은 날 22일 제주항 어선부두 공한지에서 한 상인이 초여름 햇살 아래 오징어 말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보행자 안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 추진

신촌·재릉초등학교 등 4곳

어린이보호구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예산 9000만원을 투입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촌초등학교와 재릉초등학교, 관덕정 및 신성고 인근 등 4곳에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보행자 횡단보도 대기 시 "잠시만 기다리시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옵니다"라는 음성, 적색신호 중 차도도 진입하면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라는 경고 음성을 내보내 보행자의 돌발행동을 제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행자 무단횡단과 신호가 바뀌기 전에 뛰어나가거나 도로에 나와 신호를 대기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차량의 불필요한 신호 대기 문제를 해결하여 정체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서귀포시 하영올레 2코스 26일 개장

문화테마 시청~정모시킵터~이중섭거리 6.4km 구간 개장일에 건강·지역경제·문화 융복합 뉴노멀 행사

서귀포시가 오는 26일 도심 도보투어인 '하영올레' 2코스를 정식 개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하영올레는 모두 3개 코스로 이뤄지며 이번 개장 예정인 2코스는 서귀포시청을 출발해 정모시킵터-불로초공원-자구리해안-서귀포항-이중섭거리-매일올레시장을 거쳐 시청으로 돌아오는 6.4km 구간이다. 코스의 특징은 공원과 하천, 바다, 거리를 걸으며 느끼는 '문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앞서 시는 공원을 테마로 하는 1코스를 지난 5월 29일 개장했다. 시는 하영올레 2코스 개장과 관련, 개장식을 대신해 시민과 도보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시는 편안한 도보투어를 위해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물, 지도와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

는 티슈가 담긴 하영올레 배낭을 지급한다. 또한 하영올레 기획의 핵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의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해 선착순 200명에게 매일올레시장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코스를 걷는 도중 태평근린공원에서 오전 10시30분과 11시 두차례에 걸쳐 도입 서귀포관광단의 문화공연을 마련한다. 시는 내달 31일 3코스를 개장한다. 전면 개장 이후에는 제주올레 패스포트에 하영올레 1-3코스의 패스पोर्ट을 별책부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육구 충족을 위한 도보인증을 개발 중이다. 백금기자

성산지역에 '키위특화단지' 조성

서귀포시, 10억 투입 3.2ha 하우스·덕 시설 지원

서귀포시가 성산출몰농협과 제주도농부농업기술센터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지역에 키위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성산지역의 월동무 위주 단작으로 농가소득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키위 특화단지 조성 필요

성을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매년 농업인 20여명을 선발하고 최종 재배능가 100호 이상, 재배면적 50ha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해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생산기술 지도를 통해 고품질 키위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백금기자 haru@ihalla.com

'자기차고지사업'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

제주시 "8월말까지 신청해야 올해 지원 가능"

날로 악화하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면서 신청도 8월말까지 서둘러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면서 사업 신청이 8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가 이전보다 2개월 정도 더 소요되고, 주민들에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사업과 관련 지난해보다 20% 증액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400개소 600면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 현재 총 603건의 현장확인이 이뤄졌으며, 사업이 가능한 462건 중 사업을 신청해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건수는 238개소(7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21개소에 2028년 조성이 완료돼 4억여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17건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224건은 사업신청을 연기한 상태다. 시는 여러 요인으로 사업신청을 연기한 224건에 대해서는 전화·우편·방문 등 지속적인 안내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보조금 보조율이 90%로 최대 지원한도는 단독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이다. 또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가는 담장 철거비 최대 10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9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도록 하고 있다. 이윤형기자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확보 ★

대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on.com

승사: 전화상담 → 교육신청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실시장의 새로운 장르!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겉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에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봉,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론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및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천혜향
- 미니향
- 탐라향 5년생(화분)
- 공천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속국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공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3-20-08

010-2699-2355